

말씀의 초대 | 록 12:2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한민기 목사  
새하늘교회  
경기서법회장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지위, 더 풍족한 소유가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 믿지만, 세상이 주는 답은 결국 우리를 허무와 불안 속에서 방황하게 할 뿐입니다. 이 답답한 현실의 굴레에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 복음' 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이 갈망의 해답을 찾기 위해 방황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세상의 학문과 철학, 육체적 쾌락,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하며 진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지식은 머리만을 채웠을 뿐, 정작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던 깊은 정욕과 죄의 본성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방황하던 그는 "듣고 읽어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펼친 성경 로마서 13장 13-14절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관념적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실재를 만났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모든 세속적 야망과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나 도덕적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실체로 깨뜨린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참된 복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옛 자아의 죽음과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의 교만과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복음의 실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복음은 죄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 디�프리히 분회퍼가 경고했듯이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의 삶, 즉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삶에는 어떤 변화가 수반될까요?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습관적인 악과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둘째,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명예, 물질적인 풍요를 좇던 삶은 끊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일어납니다.

셋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변화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넷째, 복음을 소유한 자는 여경 속에서 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알기에, 복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을 견딜 힘과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선물합니다. 세상의 헛된 답을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복음은 죄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 디�프리히 분회퍼가 경고했듯이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의 삶, 즉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삶에는 어떤 변화가 수반될까요?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습관적인 악과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둘째,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명예, 물질적인 풍요를 좇던 삶은 끊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일어납니다.

셋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변화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넷째, 복음을 소유한 자는 여경 속에서 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알기에, 복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을 견딜 힘과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선물합니다. 세상의 헛된 답을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장애인의주일, 교계선 여성이 두 번째 제정

매년 4월 넷째 주일로 지켜... 많은 관심과 지원 절실

한국교회가 장애인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4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장애인주일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게 된 배경에는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지정과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 관련법 제정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기점으로 교계에서도 장애인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이 지난 첫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제정하였으며, 1990년 한국기독교개신교단협의회에서도 4월 넷째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 여성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뒤를 이어 교계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주일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다.

초창기에는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장애인 특별 초청예배, 모금활동을 통한 장애인 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지역



교회들의 관심 부재 속에 점차 장애인 주일이 잊혀져 가고 있다. 장애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이에 대처해 왔으나 내외부적인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쏟아내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작 장애인주일에 교회에 장애인은 없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교단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않는다.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지만, 장애인 중 기독교인은 5% 미만이며,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가정이나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자신들만의 별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아무런 불편이나 거리낌 없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적 배려도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남다르다면 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교회에 등록할 때, 그의 가족들도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선과 손길에서 그 교회를 평가하고 떠나거나, 혹은 믿음을 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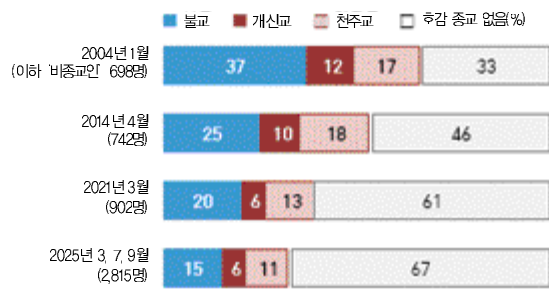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안에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영적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를 보듬으며, 서모가 하나 되어 복음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먼저 장애인주일을 제정했다는 역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개신교인, 굳건한 신앙실천... 사회적 신뢰도는 최하위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2025년 조사결과 발표

●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2004-2025



1983년 이래 정기적으로 <한국인의 종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갤럽은 지난달 26일 우리 국민들의 종교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의 종교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선 통계상 드러난 개신교의 가장 큰 강점은 교인들의 '내적 결속력'과 '역동성'이 굳건하다는 점이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주요 3대 종교 가운데 개신교는 개인의 종교 활동과 신앙 실천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실제 매주 종교집회(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개신교가 57%로 천주교(42%)와 불교(1%)를 크게 앞섰다. 성경 읽기(42%)와 매일 기도하는 비율(57%)에서도 천주교(경전 읽기 35%·매일 기도 31%)와 불교(경전 읽기 3%·매일 기도 5%) 대비 압도적인 실천율을 보였다.

특히 절대자나 기적 등 초자연적 개념을 믿는 비율 역시 개신교인이 타 종교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개신교인의 71%가 '절대자'의 존재를, 55%가 '기적'을 믿는다고 답변 반면, 천주교는 각각 58%와 42%, 불교는 33%와 27%에 그쳤다.

이는 개신교가 단순한 종교 소속감을 넘어, 신앙이 교인들의 실제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호감도 최하위 속 '무관심' 확산

한국교회 밖의 시선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15%), 천주교(11%), 개신교(6%) 순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실제 교세 점유

율은 가장 높지만, 비종교인 관점에서의 위상은 천주교보다도 낮게 평가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개신교의 낮은 호감도는 다른 지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에 달해 충격적 수준을 보였다.

한국리서치의 '2024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도 개신교는 100점 만점 기준 33.3점을 기록해 불교(52.5점), 천주교(51.3점)와 큰 격차를 보이며 대중적 신뢰 회복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갤럽은 2025년 3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총 4,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국(제주 제외) 만 18세 이상 남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대면 면접(CAP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포인트(전체 성인 5,000명 기준 집계 시) 내외이다.

제105회 총회임원후보자 정견발표 일정

1차 정견발표회 (서울/경기/강원/인천)

- ▶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 ▶ 장 소 :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아립국제회의실

2차 정견발표회 (충청권/대전/영남·호남/제주)

- ▶ 일 시 : 2026년 4월 27일(월) 오후 2시
- ▶ 장 소 : 대전 계룡스파텔 지하 1층

※ 참가자 교통비 지급(참석대의원 1인당 1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곽종원 목사 | 서기 한은기 목사

성결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동문회 총회

"다시 만나는 설렘, 함께 나누는 기쁨"

초록이 짙어가는 4월 그라운 얼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시

2026년 4월 28일(화요일) 11시 30분

장소

안양 평촌 마벨리에

동문회장 최상현 목사

※ 회비 없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석 문의: 010-5506-5782(이하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원로·공로상로회 출범



정완장로  
부흥하는독일교회

할렐루야! 제23회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해도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교회 목사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회장 정완장로(부흥하는독일교회)
- △ 수석부회장 이철구 장로(강서교회)
- △ 부회장 강환준 장로(주님앞에제일교회), 박근주 장로(더드림교회), 오진근 장로(진주감리리교회)
- △ 총무 이광진 장로(창신교회)
- △ 부총무 최병순 장로(주님앞에제일교회)
- △ 서기 이경영 장로(부흥하는독일교회)
- △ 부서기 이현평 장로(등촌제일교회)
- △ 회계 백중욱 장로(거룩한씨성교회)
- △ 부회계 한은진 장로(주님앞에제일교회)
- △ 감사 하봉희 장로(거룩한씨성교회), 나윤찬 장로(운양교회)